

| | | | | | | |
|---------|---------------------------------|-------------|---------|-----|-------|---------------|
| 과 제 구 분 | 기본연구 | Code : SS01 | 수행구분 | 전반기 | 연구기간 | '01 ~ '02(완결) |
| 연구과제명 | 지역특화작목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 | | | | 연구책임자 | 안용진 |
| 세부과제명 | 강원도 주요약초재배 실태 분석 및 경영성과 제고방안 연구 | | | | | |
| 연구원별임무 | | | | | | |
| 구 분 | 소 속 | 성 명 | 담 당 임 무 | | | |
| 세부과제책임자 | 작물경영연구과 | 안 용 진 | 연구 총괄 | | | |
| 공동연구자 | " | 한 종 수 | 연구 협조 | | | |
| | " | 채 영 길 | 연구 협조 | | | |
| | " | 김 승 경 | 연구 협조 | | | |
| | 강원대학교 | 신 해 식 | 연구 협조 | | | |
| 색인용어 | 약초, 당귀, 황기, 지역특화작목, 경영비, 소득, 유통 | | | | |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sent the management rationalization methods through status analysis of Medicinal Crop farm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cultivation area of Medicinal Crop farm was 0.98ha and the cultivation technologies are dependent on the each farmers' experiences or neighboring farmers' experiences. The farmers sold Medicinal Crop in the favorable time after collecting information or determined the time for sales after discussing with neighbors. 84% of respondents sold Medicinal Crop by selling in producing area, because of conventional complicative marketing channel. One of the main reason using yard sales could not find the suitable customers and 38% of respondents selected contract sales or individual market forwarding for the future sales method. Only one farmer will sell Medicinal Crop through internet, Medicinal Crop production's characteristics makes it too small.

1. 연구배경

약초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생약 및 한약재의 원료이자 농가소득원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약초 생산은 호당 경작규모가 영세하며 생산기반 구축이 어려운 산간·구릉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어렵다. 더구나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라 값싼 중국산에 밀려 약용작물 재배농가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들 약초 가운데서도 황기, 당귀를 포함한 주요 한약재는 정부가 수급조절품목으로 고시해 수입량과 그 시기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도가 한약재가 아닌 식용으로 들어오면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입 및 제조업체들이 식용으로 들어와서 한약재용으로 팔아 약초 재배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지난 1995년 41,980톤에 달하던 약초생산량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겪으면서 크

게 줄어 2001년 30,798톤으로 27% 이상 줄었다. 국내생산량이 이처럼 줄어들면서 2000년 수입된 외국산 한약재는 8,000만달러 어치인 74,000여톤 으로 국내 시장규모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6년 972톤이었던 국산 약초의 수출은 2000년 98톤만을 수출해 90% 가 격감했으며 국내 약초 재배면적 역시 1995년 14,954ha에서 2001년 10,187ha로 줄었다.

약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과 함께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뉴 라운드 협상 등으로 인한 저가의 외국산 약초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 주요 약초인 황기, 당귀재배농가의 유통구조 실태분석에 의한 유통경로의 효율성과 경영성과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내 주산지인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황기 30, 당귀 2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한 면접 청취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약초재배의 경영성과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우리나라 약초 생산현황

약초 재배면적은 표1과 같이 1970년 3,863ha에서 매년 증가해 1995년에는 무려 4배 가까운 14,954ha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해 2001년에는 10,187ha로 1970년 대비 2.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산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생산량은 1970년 7,134톤에서 2001년 30,798톤으로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약초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연도 | 재배면적(ha) | 생산량(M/T) |
|------|----------|----------|
| 1970 | 3,863 | 7,134 |
| 1975 | 4,556 | 8,149 |
| 1980 | 3,966 | 6,380 |
| 1985 | 4,025 | 12,616 |
| 1990 | 9,179 | 22,822 |
| 1995 | 14,954 | 41,980 |
| 2000 | 9,936 | 30,141 |
| 2001 | 10,187 | 30,798 |

자료: 농림부, 「2001특용작물생산실적」, 2002. 3

2001년 현재 재배면적은 표 2와 같이 강원도가 가장 크고 이어서 경상북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의 순이었다.

약초는 본래 야생을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것이어서 생산지역 역시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재배기술의 발달로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야지대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야지대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제주도, 경상남도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서 재배되고 있다.

표 2. 지역별 약초 재배면적 및 생산량(2001년)

| 지역 | 재배면적(ha) | 생산량(M/T) |
|----|----------|----------|
| 경기 | 717 | 1,505 |
| 강원 | 2,666 | 5,609 |
| 충북 | 685 | 1,961 |
| 충남 | 726 | 3,046 |
| 전북 | 691 | 1,532 |
| 전남 | 837 | 2,361 |
| 경북 | 2,589 | 8,682 |
| 경남 | 570 | 2,015 |
| 제주 | 674 | 3,983 |
| 전국 | 10,187 | 30,798 |

자료: 농림부, 「2001특용작물생산실적」, 2002. 3

표 3과 같이 품목별로는 대다수 생약이 뿌리를 사용하는 품목이 많아 당귀를 비롯해 길경, 황기 등 근부위를 사용하는 품목의 생산량이 많고 열매나 수피 등 뿌리 이외의 부위를 사용하는 품목의 생산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유를 비롯해 오미자, 목단 등 영년작물과 수요가 비교적 적은 품목, 그리고 재배가 어려운 품목은 생산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약초 품목별 수확면적 및 생산량 변화 (단위 : ha, kg, M/T)

| 작목 | 1991년(A) | | | 2001년(B) | | | (B)/(A) | | |
|-----|----------|-----|-------|----------|-----|-------|---------|------|------|
| | 수확면적 | 단수 | 생산량 | 수확면적 | 단수 | 생산량 | 수확면적 | 단수 | 생산량 |
| 강활 | 42 | 267 | 112 | 78 | 281 | 218 | 1.86 | 1.05 | 1.95 |
| 구기자 | 214 | 240 | 514 | 259 | 212 | 549 | 1.21 | 0.88 | 1.07 |
| 길경 | 1,140 | 461 | 5,255 | 503 | 637 | 3,205 | 0.44 | 1.38 | 0.61 |
| 당귀 | 613 | 336 | 2,061 | 1,237 | 291 | 3,604 | 2.02 | 0.87 | 1.75 |

| 작목 | 1991년(A) | | | 2001년(B) | | | (B)/(A) | | |
|-----|----------|-----|--------|----------|-----|--------|---------|------|------|
| | 수확면적 | 단수 | 생산량 | 수확면적 | 단수 | 생산량 | 수확면적 | 단수 | 생산량 |
| 두충 | 75 | 269 | 202 | 497 | 378 | 1,877 | 6.63 | 1.41 | 9.29 |
| 만삼 | 6 | 383 | 23 | 3 | 400 | 11 | 0.50 | 1.04 | 0.48 |
| 목단 | 50 | 724 | 362 | 8 | 384 | 30 | 0.16 | 0.53 | 0.08 |
| 방풍 | 33 | 282 | 93 | 67 | 384 | 258 | 2.03 | 1.36 | 2.77 |
| 백지 | 14 | 321 | 45 | 40 | 594 | 239 | 2.86 | 1.85 | 5.31 |
| 맥문동 | 61 | 284 | 173 | 96 | 226 | 216 | 1.57 | 0.80 | 1.25 |
| 사삼 | 483 | 402 | 1,942 | 1,126 | 558 | 6,284 | 2.33 | 1.39 | 3.24 |
| 산수유 | 140 | 265 | 371 | 95 | 360 | 342 | 0.68 | 1.36 | 0.92 |
| 산약 | 142 | 541 | 768 | 414 | 540 | 2,234 | 2.92 | 1.00 | 2.91 |
| 시호 | 279 | 143 | 400 | 39 | 197 | 78 | 0.14 | 1.38 | 0.20 |
| 의이인 | 72 | 206 | 148 | 549 | 227 | 1,246 | 7.63 | 1.10 | 8.42 |
| 오미자 | 132 | 194 | 256 | 230 | 97 | 223 | 1.74 | 0.50 | 0.87 |
| 작약 | 415 | 785 | 3,258 | 143 | 635 | 910 | 0.34 | 0.81 | 0.28 |
| 지황 | 131 | 573 | 751 | 86 | 609 | 521 | 0.66 | 1.06 | 0.69 |
| 지모 | 11 | 436 | 48 | 1 | 367 | 4 | 0.09 | 0.84 | 0.08 |
| 천궁 | 538 | 313 | 1,686 | 459 | 319 | 1,463 | 0.85 | 1.02 | 0.87 |
| 택사 | 229 | 294 | 674 | 207 | 474 | 982 | 0.90 | 1.61 | 1.46 |
| 하수오 | 97 | 228 | 221 | 178 | 317 | 563 | 1.84 | 1.39 | 2.55 |
| 향부자 | 153 | 588 | 889 | 64 | 529 | 337 | 0.42 | 0.90 | 0.38 |
| 황기 | 803 | 275 | 2,207 | 755 | 256 | 1,932 | 0.94 | 0.93 | 0.88 |
| 황금 | 97 | 160 | 155 | 80 | 225 | 181 | 0.82 | 1.41 | 1.17 |
| 결명자 | 78 | 249 | 194 | 2 | 254 | 13 | 0.03 | 1.02 | 0.07 |
| 독활 | 106 | 549 | 582 | 210 | 673 | 1,412 | 1.98 | 1.23 | 2.43 |
| 전체 | 6,601 | | 25,646 | 8,112 | | 30,798 | 1.23 | | 1.20 |

자료: 농림부, 「2001특용작물생산실적」, 2002. 3

표 4와 같이 약초 재배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2001년 현재 강원도가 2,666ha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다.

약초 재배농가의 호당 경영규모는 북부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경영규모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경기도가 1.18ha로 가장 크고 이어서 강원도 0.70ha와 충청북도 0.34ha 등 북부지역 산약지대의 호당 재배면적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호당 생산량 역시 제주도를 제외하면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4. 도별 생산농가 및 생산량(2001)

| 구 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재배면적(ha) | 717 | 2,666 | 685 | 726 | 691 | 837 | 2,589 | 570 | 674 | 10,187 |
| 생산량(톤) | 1,505 | 5,609 | 1,961 | 3,046 | 1,532 | 2,361 | 8,682 | 2,015 | 3,983 | 30,798 |
| 농가수(호) | 608 | 3,830 | 2,005 | 4,884 | 2,152 | 5,545 | 11,688 | 3,154 | 331 | 34,587 |
| 호당면적(ha) | 1.18 | 0.70 | 0.34 | 0.15 | 0.32 | 0.15 | 0.22 | 0.18 | 2.04 | 0.30 |
| 호당생산량(톤) | 2.48 | 1.46 | 0.98 | 0.62 | 0.71 | 0.43 | 0.74 | 0.64 | 12.0 | 0.89 |

자료: 농림부, 「2001특용작물생산실적」, 2002. 3.

표 5와 같이 재배농가의 호당 경영규모를 주요 품목별로 보면 사삼을 비롯해 당귀, 황기, 천궁 등 뿌리 사용 작물의 호당 재배면적이 큰데 반해서 열매를 비롯해 근피, 수피를 사용하는 작물의 호당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호당 재배면적은 의이인이 0.96ha로 가장 큰데 반해서 구기자 0.11ha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어 품목간 호당 경영규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10대 품목의 호당 평균재배면적 역시 0.27ha에 지나지 않아 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표 5. 주요 10대 품목별 호당 평균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작목 | 농가수(호) | 재배면적(ha) | 수확면적(ha) | 생산량(M/T) | 재배농가 호당 | | |
|-----|--------|----------|----------|----------|----------|----------|---------|
| | | | | | 재배면적(ha) | 수확면적(ha) | 생산량(kg) |
| 사삼 | 2,724 | 1,796 | 1,126 | 6,284 | 0.66 | 0.41 | 2,307 |
| 당귀 | 2,569 | 1,297 | 1,237 | 3,604 | 0.51 | 0.48 | 1,402 |
| 두충 | 3,448 | 900 | 497 | 1,877 | 0.26 | 0.14 | 544 |
| 황기 | 1,594 | 889 | 755 | 1,932 | 0.56 | 0.47 | 1,212 |
| 길경 | 4,214 | 732 | 503 | 3,205 | 0.17 | 0.12 | 761 |
| 의이인 | 634 | 610 | 549 | 1,246 | 0.96 | 0.87 | 1,965 |
| 천궁 | 1,052 | 515 | 459 | 1,463 | 0.49 | 0.44 | 1,391 |
| 산약 | 1,639 | 414 | 414 | 2,234 | 0.25 | 0.25 | 1,363 |
| 독활 | 711 | 333 | 210 | 1,412 | 0.46 | 0.30 | 1,986 |
| 구기자 | 2,303 | 261 | 259 | 549 | 0.11 | 0.11 | 238 |
| 합계 | 20,888 | 7,747 | 6,009 | 23,806 | 0.37 | 0.29 | 1,140 |

자료: 농림부, 「2001특용작물생산실적」, 2002. 3

표 6과 같이 약초의 10a당 평균소득은 118만원으로 노지채소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초 개별작목을 대체작물인 노지채소 평균소득과 비교한 결과 당귀, 작약, 황기는 낮았고 구기자, 산약, 천궁은 노지채소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약재의 수익성은 개별품목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의 경우 대체로 노지채소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약초의 소득비교(2001년)

기준 : 년1기작/10a, 단위 : 원

| 품목 | 조수입 | 경영비 | 소득 |
|---------|----------------|----------------|----------------|
| 구기자 | 2,971,098(161) | 1,368,673(194) | 1,602,425(140) |
| 산약 | 2,931,301(159) | 1,417,470(201) | 1,513,832(132) |
| 천궁 | 2,245,068(122) | 892,328(127) | 1,352,740(118) |
| 당귀 | 1,744,356(94) | 804,258(114) | 940,098(82) |
| 작약 | 1,241,188(67) | 372,989(53) | 868,199(76) |
| 황기 | 1,591,820(86) | 740,960(105) | 850,860(74) |
| 평균 | 2,120,805(115) | 932,780(133) | 1,188,026(104) |
| 노지채소 평균 | 1,847,923(100) | 704,018(100) | 1,143,905(100) |

주: 작약의 경우 1년1기작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농촌진흥청, 「2001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2. 8

나. 강원지역 약초 생산현황

1997년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는 약초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쳐 1998년 면적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 2001년에 와서야 1997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7과 같이 농가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 호당 경지면적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강원지역 약초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연도 | 농가수(호) | 면적(ha) | 생산량(톤) |
|------|--------|--------|--------|
| 1997 | 5,734 | 2,857 | 6,396 |
| 1998 | 4,951 | 2,333 | 4,723 |
| 1999 | 4,629 | 2,386 | 4,969 |
| 2000 | 4,083 | 2,522 | 5,304 |
| 2001 | 3,674 | 3,298 | 5,800 |

자료: 강원도 유통특작과, 「강원통계자료집」, 2002.

표 8과 같이 약초 재배면적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2001년 현재 화천군이 721.3ha로 가장 많고 이어서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 삼척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난 것은 사삼 재배면적이 705ha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8. 시·군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2001년)

| 시·군 | 농가수(호) | 면적(ha) | 생산량(톤) |
|-----|--------|---------|---------|
| 춘천시 | 66 | 38.5 | 107.6 |
| 원주시 | 5 | 8.0 | 18.0 |
| 강릉시 | 99 | 62.3 | 168.4 |
| 동해시 | 29 | 8.5 | 2.9 |
| 태백시 | 97 | 83.5 | 159.7 |
| 속초시 | 8 | 2.0 | 2.5 |
| 삼척시 | 910 | 264.2 | 334.6 |
| 홍천군 | 343 | 185.9 | 445.1 |
| 횡성군 | 326 | 489.4 | 570.6 |
| 영월군 | 191 | 95.4 | 174.9 |
| 평창군 | 743 | 625.9 | 1,612.3 |
| 정선군 | 460 | 348.4 | 1,308.6 |
| 철원군 | 84 | 77.5 | 157.9 |
| 화천군 | 50 | 721.3 | 286.5 |
| 양구군 | 63 | 58.8 | 172.7 |
| 인제군 | 82 | 211.8 | 243.2 |
| 고성군 | 30 | 3.0 | 7.0 |
| 양양군 | 88 | 13.6 | 27.0 |
| 합 계 | 3,674 | 3,298.0 | 5,799.5 |

자료: 강원도 유통특작과, 「강원통계자료집」, 2002.

표 9와 같이 강원지역의 경우도 역시 당귀를 비롯해 사삼, 황기, 길경 등 근부위를 사용하는 품목의 생산량이 많았고 열매나 수피 등 뿌리 이외의 부위를 사용하는 품목의 생산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유를 비롯해 방풍, 만삼은 2001년에 와서는 생산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약초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단위 : 호, ha, M/T

| 작목 | 1997년(A) | | | 2001년(B) | | | (B)/(A) | | |
|-----|----------|-------|---------|----------|---------|---------|---------|------|------|
| | 농가수 | 면적 | 생산량 | 농가수 | 면적 | 생산량 | 농가수 | 면적 | 생산량 |
| 강활 | 157 | 67.3 | 132.2 | 59 | 30.5 | 61.7 | 0.38 | 0.45 | 0.47 |
| 길경 | 803 | 200.2 | 531.8 | 637 | 192.0 | 643.4 | 0.79 | 0.96 | 1.21 |
| 당귀 | 1,593 | 963.4 | 2,362.1 | 1,044 | 820.4 | 2,369.7 | 0.66 | 0.86 | 1.00 |
| 두충 | 359 | 132.0 | 167.5 | 303 | 90.6 | 98.3 | 0.84 | 0.69 | 0.59 |
| 만삼 | 16 | 0.9 | 2.1 | 4 | 0.8 | - | 0.25 | 0.89 | - |
| 방풍 | 6 | 5.0 | 12.0 | - | - | - | - | - | - |
| 사삼 | 887 | 403.1 | 982.3 | 834 | 1,513.3 | 1,502.6 | 0.94 | 3.75 | 1.53 |
| 산수유 | 2 | 0.9 | 1.8 | - | - | - | - | - | - |
| 산약 | 5 | 1.5 | 3.8 | 2 | 4.3 | 11.0 | 0.40 | 2.87 | 2.90 |
| 시호 | 69 | 16.3 | 30.5 | 9 | 5.5 | 5.5 | 0.13 | 0.34 | 0.18 |
| 의이인 | 52 | 15.4 | 38.1 | 70 | 15.9 | 37.0 | 1.35 | 1.03 | 0.97 |
| 오미자 | 24 | 320.2 | 337.4 | 10 | 163.5 | 122.9 | 0.42 | 0.51 | 0.37 |
| 작약 | 65 | 29.4 | 104.4 | 36 | 12.8 | 43.8 | 0.55 | 0.44 | 0.42 |
| 천궁 | 157 | 88.3 | 213.1 | 38 | 35.2 | 143.3 | 0.24 | 0.40 | 0.67 |
| 하수오 | 6 | 0.6 | 2.4 | 18 | 3.5 | 3.2 | 3.00 | 5.83 | 1.33 |
| 황기 | 1,003 | 536.7 | 1,289.5 | 573 | 393.0 | 700.7 | 0.57 | 0.73 | 0.54 |
| 독활 | 6 | 2.0 | 3.7 | 16 | 7.3 | 27.9 | 2.67 | 3.65 | 0.27 |
| 천마 | 498 | 62.1 | 136.0 | 9 | 1.5 | 4.7 | 0.02 | 0.02 | 0.03 |
| 고분 | 26 | 11.7 | 44.9 | 12 | 7.9 | 23.8 | 0.46 | 0.68 | 0.53 |

자료: 강원도 유통특작과, 「강원통계자료집」, 2002.

다. 강원지역 약초 재배농가 경영실태

1) 조사대상자 연령

도내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 중 황기 30농가, 당귀 20농가 전체 5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표 10과 같이 52.2세였다. 이들 중 49세 이하는 38%, 50세 이상은 62%를 차지하였다.

표 10. 조사대상 농업인의 연령

단위 : 명, %

| 구 분 | 30 ~ 39세 | 40 ~ 49세 | 50 ~ 59세 | 60세 이상 | 계 |
|-----|----------|----------|----------|--------|---------|
| 농가수 | 1(2) | 18(36) | 24(48) | 7(14) | 50(100) |

2) 영농경력 및 약초 재배년수

조사농가의 영농경력은 평균 32.4년이고 약초 재배년수는 평균 10.8년이었다. 표 11과 같이 약초재배경력이 10년 미만인 농가가 조사농가의 60%인 30명을 차지한 것은 '90년대 이후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한방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농가들이 새로이 약초재배를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 영농경력 및 약초 재배경력 단위 : 명, %

| 구 분 | 10년 미만 | 10년 ~ 19년 | 20 ~ 29년 | 30년 이상 |
|---------|--------|-----------|----------|--------|
| 영 농 경 력 | 1(2) | 3(6) | 9(18) | 37(74) |
| 약초 재배경력 | 30(60) | 13(26) | 6(12) | 1(2) |

3) 약초 재배규모

표 12와 같이 조사 농가의 재배면적 평균은 0.98ha이었다. 강원도 평균 0.70ha 보다 더 크고 전국 평균 0.3ha 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초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있고 널리 재배되고 있는 황기와 당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표 12. 재배규모별 농가수 단위 : ha, 명

| 재배면적 | 0.5미만 | 0.5-1.0 | 1.0-1.5 | 1.5-2.0 | 2.0이상 | 평균 |
|-------|-------|---------|---------|---------|-------|------|
| 농 가 수 | 12 | 11 | 22 | 3 | 2 | 0.98 |

4) 약초 재배동기

표 13과 같이 강원지역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약초를 재배하게 된 최초동기로는 조사농가의 50%인 25명이 고소득 작물이어서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조사농가의 38%인 19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약초 재배동기 단위 : 명, %

| 구 분 | 고소득 작물이어서 |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 선친때부터 재배 | 이웃의 권유 | 계 |
|----------|-----------|--------------|----------|--------|---------|
| 계 | 25(50) | 19(38) | - | 6(12) | 50(100) |
| 30세 이하 | - | - | - | 1(2) | 1(2) |
| 31 ~ 40세 | 9(18) | 9(18) | - | - | 18(36) |
| 41 ~ 50세 | 14(28) | 6(12) | - | 4(8) | 24(48) |
| 60세 이상 | 2(4) | 4(8) | - | 1(2) | 7(14) |

5) 금후 약초 재배규모

표 14와 같이 약초 재배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농가는 조사농가의 26.0% 였으며 62%는 현재의 재배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여 축소보다는 현상유지나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가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금후 약초재배 규모 단위 : 명, %

| 구 분 | 규모확대 | 현상유지 | 규모축소 | 작목전환 | 계 |
|----------|--------|--------|-------|------|---------|
| 계 | 13(26) | 31(62) | 6(12) | - | 50(100) |
| 30세 이하 | - | 1(2) | - | - | 1(2) |
| 31 ~ 40세 | 5(10) | 10(20) | 3(6) | - | 18(36) |
| 41 ~ 50세 | 5(10) | 17(34) | 2(4) | - | 24(48) |
| 60세 이상 | 3(6) | 3(6) | 1(2) | - | 7(14) |

6) 약초 재배기술 습득방법

표 15와 같이 재배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경험으로가 23농가로 46%, 인근 선진농가로 부터가 19농가로 19%를 차지하여 관련단체나 연구지도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하의 농가에서는 연구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습득을 하는 농가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약초 재배기술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약초 농가컨설팅이 필요하다.

표 15. 약초 재배기술 습득방법 단위 : 명, %

| 구 분 | 경험으로 | 인근 선진농가 | 서적 및 잡지 | 약초 관련단체 | 연구지도기관 | 계 |
|----------|--------|---------|---------|---------|--------|---------|
| 계 | 23(46) | 19(38) | 1(2) | 1(2) | 7(14) | 50(100) |
| 1 ~ 5년 | 2(4) | 6(12) | - | - | 2(4) | 10(20) |
| 6 ~ 10년 | 11(22) | 6(12) | 1(2) | - | 2(4) | 20(40) |
| 11 ~ 15년 | 7(14) | 4(8) | - | - | 2(4) | 13(26) |
| 16 ~ 20년 | 2(4) | 3(6) | - | 1(2) | - | 6(12) |
| 21년이상 | 1(2) | - | - | - | - | 1(2) |

7) 판매시기 결정요인

표 16과 같이 판매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이웃과 협의 15명, 정보수집 후 유리한 때 12명, 생육상태에 따라 9명, 경험으로 8명, 관련기관 권유 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판매시기 결정요인

단위 : 명, %

| 구 분 | 경험으로 판단 | 이웃농가와 협의 | 정보수집 후 유리한 때 | 관련기관의 권유 | 생육상태에 따라 | 계 |
|----------|---------|----------|--------------|----------|----------|---------|
| 계 | 8(16) | 15(30) | 12(24) | 6(12) | 9(18) | 50(100) |
| 1 ~ 5년 | 1(2) | 2(4) | 3(6) | 1(2) | 3(6) | 10(20) |
| 6 ~ 10년 | 1(2) | 6(12) | 6(12) | 5(10) | 2(4) | 20(40) |
| 11 ~ 15년 | 5(10) | 3(6) | 3(6) | - | 2(4) | 13(26) |
| 16 ~ 20년 | - | 4(8) | - | - | 2(4) | 6(12) |
| 21년이상 | 1(2) | - | - | - | - | 1(2) |

8) 현재 판매방법

표 17을 보면 약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는 조사농가의 84%가 포전·정전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계약판매 10%, 개별시장출하 6%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지수집상에 대한 포전·정전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현재판매방법

단위 : 명, %

| 포전판매 | 정전판매 | 계약판매 | 개별시장출하 | 계 |
|--------|--------|-------|--------|---------|
| 22(44) | 20(40) | 5(10) | 3(6) | 50(100) |

9) 현재의 판매방법을 택한 이유

표 18과 같이 현재의 판매방법을 택한 이유로는 전체 조사농가의 32%인 16명이 판매처가 마땅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약초는 다른 작목에 비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최종수요자인 한의원에 이르기까지 가공·조제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농가에서 최종소비자への 직거래나 다양한 판매방법 개발이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서가 24%, 위험부담이 적어서가 16%로 산지수집상이나 중간상이 가격하락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거나 선대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8. 현재의 판매방법을 택한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서 | 판매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 위험부담이 적어서 | 노동력이 부족해서 | 뒤편 마련이 쉬워서 | 자금회전이 빨라서 | 계 |
|----------|------------------|---------------|-----------|-----------|------------|-----------|---------|
| 계 | 12(24) | 16(32) | 8(16) | 5(10) | 2(4) | 7(14) | 50(100) |
| 1 ~ 5년 | 4(8) | 2(4) | - | 1(2) | - | 3(6) | 10(20) |
| 6 ~ 10년 | 3(6) | 5(10) | 7(14) | 2(4) | 1(2) | 2(4) | 20(40) |
| 11 ~ 15년 | 4(8) | 4(8) | 1(2) | 2(4) | 1(2) | 1(2) | 12(24) |
| 16 ~ 20년 | - | 5(10) | - | - | - | 1(2) | 6(12) |
| 21년이상 | 1(2) | - | - | - | - | - | 1(2) |

10) 장래 판매방법

표 19에서 보면 앞으로 약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는 계약판매나 개별시장 출하를 추진하겠다는 농가가 조사농가의 38%인 19농가로 조사되어 현재 주 판매방법인 포전·정전판매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여 84%인 42농가에서 60%인 30명으로 낮아졌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약초를 판매해 보고 싶다는 농가도 1명 있었으나 생산물의 특성상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장래 판매방법

단위 : 명, %

| 포전판매 | 정전판매 | 계약판매 | 개별시장출하 | 전자상거래 | 계 |
|------|--------|--------|--------|-------|---------|
| 0(0) | 30(60) | 10(20) | 9(18) | 1(2) | 50(100) |

11) 농가수준에서 판매시 가공형태별 판매비율

표 20과 같이 농가수준에서 판매시 가공정도를 보면 총 판매량중 98%가 생근(生根) 또는 건조후 판매하고 있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가수준에서의 가공수준이 활발하지 않았다.

표 20. 가공형태별 판매배율

단위 : %

| 판매시 가공형태 | 생근판매 | 건조판매 | 절단판매 | 포장판매 |
|----------|------|------|------|------|
| 판매비율 | 12 | 86 | 2 | 0 |

12) 황기 판매방법별 경영성과

표 21과 같이 정전판매에 비해 개별시장 출하시 추가되는 비용은 80원/kg인것에 반해 판매가격(농가수취가격)은 1,460원/kg을 더 받아 유리하였고, 계약판매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황기 판매방법별 경영성과

| 판매방법 | 판매가격(A) (원/kg) | 판매비용(B) (원/kg) | 판매수입(A-B) (원/kg) | 지수 |
|--------|-------------------|-------------------|---------------------|-------|
| 포전판매 | 7,500 | | 7,500 | 95.5 |
| 정전판매 | 8,800 | 950 | 7,850 | 100 |
| 계약판매 | 8,500 | | 8,500 | 108.2 |
| 개별시장출하 | 9,500 | 1030 | 8,470 | 107.8 |

4. 적 요

약초는 가공과 처방·조제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작목이다. 따라서 약초 유통경로에는 가공과 처방·조제를 담당할 유통기관이 존재한다. 도매시장은 집하와 분산, 수급조절, 가격형성, 대금결제, 위험전가와 유통비용절감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약재는 공영도매시장의 부족으로 이런 기능을 유사도매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공신력 부족, 합리적 가격형성을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가공과 처방·조제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한약재의 특성으로 유통경로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 한약재 시장이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한약재 공영도매시장 건립이 필요하다.

약초는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간·고냉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규제개혁에 따른 수급조절품목의 점차적인 축소, 유사도매시장에 의한 도매시장의 기능의 수행,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가공상의 규제, 한약재 특성으로 인해 유통경로의 복잡 등 유통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수준에서 가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시설 및 기술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가공 후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영도매시장이 추가적으로 건설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이 공영도매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용문헌

- 강원도. 2002. “강원통계자료집”.
- 농림부. 2002. “2001 특용작물 생산실적”.
- 농촌진흥청. 2002. “2001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이의상. 1990.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현황”. 농업협동조합전문대학.
- 이승택 외. 1991. “약초재배”. 농촌진흥청.
- 류진춘 외. 1995. “약용작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 성낙술 외. 1998. “수출유망약용작물의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확립”. 농촌진흥청.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약초재배 경영성과 제고방안..... (2002. 기초자료)